

現代文學과 濟州文學

金 永 和*

목 차

1. 「濟州文學」 創刊
2. 作 家
3. 言 語
4. 情 緒
5. 이 야 기
6. 素 材
7. 濟州文學이란 무엇인가

1. 「濟州文學」 創刊

〈濟州文學〉이라는 用語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필자가 기억하기로는 1960년대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濟州開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濟州民들 사이에도 濟州文化에 대한 자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주의 학자들에 의해 제주의 방언, 설화, 민요 등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文學作品的 創作에 있어서도 제주의 鄉土的인 것을 素材로 작품을 쓰는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문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주적인 것의 文學作品化'는 하나의 과제로 의식되었다. 그 때 濟州方言, 濟州說話, 濟州民謠와 연결시켜 〈濟州文學〉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 때는 素材에 무게를 실어 막연하게 '濟州의 鄉土的인 것을 소재로 한 문학'을 〈濟州文學〉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梁重海의 첫 詩集 「波濤」(신수문화사, 1963)에 실려 있는 「波濤 소리」, 「漢拏山」, 「觀德亭」, 「黑珊瑚」, 金光協의 「濟州 바다」(제주신문, 1966. 2. 17), 「思鄉詞」(詩文學, 1966. 7), 「西歸浦」(現代文學, 1968. 6), 「月羅山 진달래꽃」(詩文學, 1966. 7) 등의 詩들이 1960년대에 나왔다. 이런 詩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鄉土的인 것을 素材로 작품을 쓴 것이다. 이런 문학이 <제주문학>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1970년대에 들어 와서는 小說에서도 鄉土的인 것을 소재로 쓴 작품이 나왔다. 吳成贊의 「돌쟁이」(제주도, 1970. 3), 「막산이」(제주도, 1970. 6), 「漁夫들」(現代文學, 1971. 8), 「비바라」(月刊文學, 1973. 6), 「흐르는 故鄉」(現代文學, 1973. 8) 등이 그것이다.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濟州文學>이라는 용어는 대체로 '鄉土的인 것을 素材로 쓴 작품'이라는 뜻으로 굳어져 갔다.

1972년에 들어 와서 韓國文人協會 濟州道支部가 재정비되고 조직을 활성화 하면서 해마다 「濟州文學」을 발간하기로 하고, 12월에 그 創刊을 보았다. 그때의 <濟州文學>이라는 말 속에는 '제주지역의 문학'이라는 뜻이 강하게 담겨 있었다. 단순히 鄉土的인 것을 소재로 쓴 작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濟州地域에 살면서 文學活動을 하는 사람들의 文學'이라는 뜻이 함축되었다. 鄉土的인 것이건 아니건 文人協會 濟州道支部 회원이라면 누구나 「濟州文學」에 작품을 발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살면서 文學活動을 하는 사람들의 작품은 물론, 직장 관계 등 일시적으로 제주에 살면서 문인협회 제주도지부에 입회한 사람들의 작품도 실었다. 이 때에 <濟州文學>이라는 用語는 문학 작품의 성격에 의한 概念 定立이라기보다 '濟州道라는 지역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文學'이라는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濟州文學>은 ① 濟州의 鄉土的인 것을 소재로 쓴 文學, ② 濟州地域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文學이라는 뜻이 混在해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濟州文學>에 대한 생각이다.

그렇다면 <濟州文學>의 概念을 어떻게 定立할 것인가.

2. 作 家

첫째 創作主體인 作家가 누구냐 하는 데서 그 실마리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濟州文學>은 <濟州人的 文學>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가 濟州人인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 제주인이다. 그러나 제주에서 태어나 外地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外地에서 태어나 제주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濟州人인가, 아닌가.

文學은 무엇보다도 意識과 情緒의 표현이다. 創作主體의 意識과 情緒에 따라 작품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濟州地域에 주택을 갖고 있고, 주민등록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意識과 情緒는 제주적인 것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제주인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금은 外地에 나아가 살고 있지만 그의 意識과 情緒에 제주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제주인이라고 보아도 좋다. 따라서 意識과 情緒의 측면에 무게를 두고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濟州人으로 보면 어떨까.

첫째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濟州文化나 風土를 몸에 익히고 공통의 氣質이나 價値觀을 가진 사람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詩 人 : 양중해, 김용길, 한기팔, 문충성, 강통원, 허영선, 강방영, 김수열, 김승림, 나기철, 고영기, 김광영, 김순이, 양영길, 김양수, 문무병, 김철수, 강종완, 서안나, 고훈식, 윤봉택, 현주하, 고병용, 김해원, 변종태, 김관후, 김상욱, 김희철, 양진건, 이소영, 강중훈 등.

時調詩人 : 정인수, 이용상, 오승철, 김공천, 정태무, 오영호, 고성기, 고웅삼, 고정국, 문태길, 강문신, 김영홍, 현춘식, 신승행 등

小 說 家 : 이시형, 오성찬, 고시홍, 오경훈, 정순희, 한림화 등

戲曲作家 : 장일홍, 강용준, 김기원 등

이들은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지역에 살았다. 제주지역의 文化나 風土가 몸에 익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내놓는 文學이 모두 濟州文學이나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상당수의 작품들이 제주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둘째는 제주에서 태어나 幼少年時節을 제주에서 보내고 成年 이후 外地에 나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幼少年時節 제주에 살았고, 그들의 부모가 濟州人이기 때문에 言語나 文化意識이 상당히 제주적인 것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은 外地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주를 故鄕으로 意識하고, 제주를 늘 생각한 사람들이다.

詩 人 : 김지원, 김대현, 김광협, 오용수, 문해림, 김용해 등

時調詩人 : 이인식

小 說 家 : 장금중, 현기영, 김진자, 현길언, 고원정, 김길호, 김석희, 이석범, (김석범) 등

이들은 幼少年時節 또는 青年時節까지 제주에 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外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가운데 현길언, 김용해, 이석범 등은 나이 40이 지나서 外地에 나갔기 때문에 직장 관계 등으로 外地에 살고 있지만 거의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내놓은 문학이 제주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셋째는 성년 이후 제주에 정착해서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小說家인 최현식이다. 그는 6·25 때 제주와 인연을 맺고, 제주 여자와 결혼해서 30여년 동안 제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그를 '新濟州人'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문학이 제주문학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3. 言 語

문학을 나누는 데 중요한 요소가 言語다. 濟州島의 구비문학 — 이를테면 說話나 民謠는 言語에서부터 그 특징이 드러난다. 설화건, 민요건 그것을 口述하거나 노래할 때 方言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한 눈에 그것이 제주의 설화요, 제주의 민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現代文學의 경우는 다르다. 現代文學 담당층의 言語는 二重構造를 가지고 있다. 제주방언과 표준어가 그것이다. 그들이 日常的으로 쓰는 言語가 方言과 표준어이기 때문에 方言으로 쓰든, 표준어로 쓰든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濟州文學의 요소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것은 方言을 많이 活用한 작품이다.

하르방의 하르방 적부터

〈구낭개〉 生木터 검복낭 엉덕 아래

아덜 귀한 〈信字邦字〉

十代孫 金氏家門이

사렛터 일구멍 살아왔저.

대(竹) 코쟁이 같은

니네 하르방 성질
 억새꽃 같은 수염광
 황소 같은 어깨광

 열 여섯에 장개 틀었
 기십없이 살젠 혼
 허구헌 날
 용심 혼번 안내명 살아와시네.

 난, 모른다.
 하르방사 업하게 키우젠 혼
 정 해주마는

 니네 아방 서러움이사
 얼마나 커시니
 니넨 나강 살라
 저 넓은 大川바당
 흰흔 디 강 살라
 - 후 락 -

- 김용길의 「할망打승」에서.

이 詩의 話者는 농민의 아내다. 거친 땅을 일구며 농사를 짓고, 억세고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남편을 둔 女人이다. 이 女人이 아이들에게 제주를 떠나 外地에 가서 살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詩의 話者를 등장시켜 표준어로 쓴다면 리얼리티 문제가 있을 것이다. 話者의 知的水準과 感性을 고려한 끝에 김용길은 이렇게 方言으로 詩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方言을 活用하여 詩를 쓴 사람은 김광협, 김용해, 김수열 등이 있다.¹⁾

소설에서도 方言을 活用한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가 그것이다.

- 1) 잠깐 자올자올 졸다가 구름그림자만 스쳐도 금방 눈이 떠졌다. (p. 5)
- 2) 자기 소는 한마리도 없이 남의 소 뒷바라지만 하니 남우세스럽기도 하리라. (p. 12)
- 3) 노인만 보면 드러누웠다가도 와들랑 일어나 반색하곤 했다. (p. 12)
- 4) 암소도 송아지도 그 동안 잘 먹어 민들민들 운나게 살졌다. (p. 14)

1) 좀더 자세한 것은 김영화의 「濟州文學과 言語」(『濟州文學』, 1994. 6) 참조.

- 5) 들관이 온통 번갯불로 벌개지고 와작작와작작 내리꽂히는 불기둥들.
(p. 21)

밀줄 친 낱말은 대체로 제주 방언이고 副詞語다.

제주 작가의 소설 가운데 방언은 對話部分에 비교적 많이 활용했다. 그것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지적 수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文學이 제주문학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言語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다.

4. 情 緒

詩는 그 작품을 쓴 詩人의 情緒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 정서는 그 詩人 個人의 것이면서 그가 속한 集團의 것일 수도 있다. 金素月의 詩에 나타난 情緒는 김소월의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의 情緒라는 것은 그런 예가 된다.

濟州 詩人들의 詩 가운데는 그 詩人의 정서가 동시에 제주 사람의 情緒와 같은 경우가 있다. 그것은 한 개인의 意識이나 情緒가 그가 속한 集團 - 제주 사람의 情緒와 공유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 전 략 —

한라산에는 토박이 풀과 나무들만이 살고 있다.
한라산의 햇별을 받고
한라산의 맑은 바람에 씻기우며
한라산의 가슴에 뿌리를 내려
한라산의 젖을 빨아먹으며 자라는
싱싱한 풀과 나무들.
몇 백년 동안
몇 천년 동안
살기 어린 흑한인들
말려 죽이려는 가뭄인들 없었으면만
제주도 사람의 기쁨과 설움과 함께
끈질기게 살아온
토박이 풀과 나무들이 나를 반긴다.
한라산의 숲 속에는
제주도 토종의 새나 짐승들만이 살고 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비 비 비 짹 짹 짹

호이 호이 호오 호르륵
귀익은 제주도 사투리로 노래 부르는 새들,
목덜미 고운 장끼
숲 속으로 숨어 버리는 아기 노루.
— 후 락 —

— 양중해의 「漢擎別曲」에서.

漢擎山은 제주 사람 모두의 것이다. 어느 個人的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라산을 노래한 詩는 그 詩를 쓴 詩人的 것이면서 동시에 제주 사람의 것일 수도 있다.

양중해의 이 詩에 나타난 정서는 양중해의 것만이 아니라 제주 사람이 日常的으로 느끼는 정서이기도 하다. 틈만 있으면 한라산으로 간다는 이 詩의 話者의 발언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발언이 아니라,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발언이다. 따라서 이런 詩는 제주문학의 특성이 드러난 作品이라고 할 수 있다.

내 소년의 마을엔
유자꽃이 하이양게 피더이다.
유자꽃 꽃잎 새이로
파아란 바다가 출렁이고,
바다 위론 똑딱선이 미끄러지더이다.
뿔마루 위에 유자꽃 꽃잎인 듯
백발을 인 조모님은 조울고
내 소년도 오롯이 잠이 들면,
보오보오 연락선이 한 소절 올 때마다
떨어지는 유자꽃
유자꽃 꽃잎이 울고만 싶더이다.
유자꽃 꽃잎이 싫기만 하더이다.

— 김광협의 「유자꽃 피는 마을」에서.

제주에서 幼少年時節을 보낸 사람이라면 이 詩를 읽으면서 지극히 안온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소년·소녀시절을 생각하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在來의 제주의 농촌과 農家가 떠오르고, 거기에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자기자신도 그 따뜻한 분위기에 젖게 될 것이다. 김광협은 그의 소년 시절의 마을을 그리면서 그 個人的

情緒를 이 詩에 쏟아 놓고 있다. 그의 또하나의 詩 - 「깨르륵 동녕바치」와 더불어 잃어 버린 제주의 시골과 그 정서를 잘 그려낸 作品이다. 제주문학적 특성이 잘 드러나 있기도 하다.

언제부터인가.

달출이 끊기어 표류하는

濟州島는 마치 한 척의 배다.

어데를 둘러 보아도

가 없는 하늘과 水平線이다.

- 종 락 -

누구의 입김인가.

때때로

질은 안개가 밀려 와서

하늘과 수평선을 지워 버린다.

霧笛이 흐느낀다.

生命의 돌레

하늘과 바다에 길이 막혔다.

소리가 있을 뿐

빛이 없다.

빛이 없는

감감한 항로에

濟州島가 좌초하였다.

- 강통원의 「霧笛」에서.

이 詩는 濟州島를 하나의 배로 비유하고, 좌초한 배가 濟州島라는 것을 드러낸다. 좌초한 배에 탄 사람들 - 이들이 濟州人이라고 하는 듯 싶다.

제주 사람의 意識과 情緒의 바닥에는 갇혀 있다는 의식과 정서가 있다. 脫出하려고 해도 바다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意識이 지배하면서 그에 따른 복잡한 情緒가 뒤따른다. 그것은 갇힘, 몸부림, 좌절 등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친 정서가 일어나기 쉬운데, 그런 제주 사람의 정서가 이 詩에는 있다.

- 전 략 -

濟州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濟州 바다를 알 수 없다.
누이야, 바람 부는 날 바다로 나가서 5월 보리 이랑
일렁이는 바다를 보라. 텃벙텃벙
너와 나의 알몸뚱이 幼年이 헤엄치는
바다를 보라, 겨울날
초가 지붕을 넘어 하늬바람 속 까옥까옥
까마귀 등을 타고 濟州의
겨울을 빛는 파도 소리를 보라.
파도 소리가 열어 놓는 하늘 밖의 하늘을 보라, 누이야.

- 문충성의 「濟州 바다」에서.

제주 사람이 日常的으로 만나는 것이 바다다. 그런 바다를 바라볼 때마다 제주 사람은 하나의 情緒를 갖는다.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삶을 생각하기도 하고, 바다에 나가 죽은 가족을 생각하기도 한다. 혹은 바다에 안겨 행복한 꿈을 꾸었던 유소년 시절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제주 사람의 情緒가 이 詩에 드러난다. 제주 사람이 아니고는 진짜 제주 바다를 알 수 없다는 진술 속에 제주 사람의 意識과 情緒가 있다.

이상 열거한 작품 외에도 제주인의 작품 가운데는 제주인의 情緒가 드러난 작품들이 상당수 있다.

5. 이야기

제주문학이 될 수 있는 강한 요소는 작품에서 다루는 제주 사람의 삶이다.

창고내 강좌수가 그렇게 죽은 후에 그 많던 재산이 관가에 귀속되었고 그 식구들은 대정 고을의 노비가 되었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되어 이상한 소문이 그 마을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밤에 강좌수의 둘째 아들이 날랜 용마(龍馬)를 타고 그 집 앞에 나타나서는 목청을 빼어 하늘을 향해 슬피 울다가 창고내(川)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을 태운 용마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곧 내려올 것이라 했다. 어떤 사람은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장군이 되어 용마를 타고 온 것을 직접 보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강좌수가 날개 돋은 장수였고 그 집터가 바로 왕이 날 땅이었는데 때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고 그 아들이 바로 못다 이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용마를 타고 올 것이라 했다. (중략)

창고내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리고 신나는 열굴로 용마 이야기를 하였고, 그러는 동안에 아주 그 이야기를 믿고는 용마 타고 오는 장군을 기다리며 강좌수를 생각하였다.

— 현길언의 「龍馬의 꿈」에서.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제주 사람이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시달렸고, 이런 관리들과 맞서는 기개있는 사람들을 존경했다. 그들이 존경했던 인물이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현실의 문제를 超越的인 힘에 의해 해결하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작품이다.

이 작품 속에 나오는 강좌수는 이 작가가 創出한 제주인이지만 상당히 제주 설화에 힘입고 있다.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그대로 傳承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설화에 나오는 人物을 조합하여 기개있는 濟州人을 창조한 것이다. 대체로 제주 설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리석거나 庶民感覺을 지닌 인물들이 많은데 이 소설에 나오는 강좌수는 氣概있고 선비다운 점이 있다. 현길언은 제주인 가운데 知的能力이 있는 인물을 창조한 경우가 많다. 그의 많은 4·3 소재의 소설들도 다른 作家의 작품과 비교하면 지식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장편소설인 「투명한 어둠」(나남, 1991)도 제주 출신 지식인들을 등장시켜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는 대문을 열어 문지방에 한 발을 올려 놓고 망설이다 예라 하는 기분으로 기둥에 걸어 두었던 바룻구덕을 내려냈다.

그리고 낚시줄과 봉돌, 낚시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갯내가 확 몸을 감싸면서 마음이 차분히 흥거로와진다.

부살나케 부엌으로 들어간 강정방은 그릇들을 연방 울그락거리며 한편 부지깅이로 벽을 쳐 아이들을 깨운다.

「아방, 오널도 바당에 갈겨우파?」

제 어머니 채근에 못이겨 눈을 부벼 쏘며 방을 나오던 큰 아들이 아버지가 연장 손질을 하는 걸 보며 건성으로 물었다.

「……」

「아방, 오널도 피기 하영 잡아 읊서예.」

막내 딸년이 제 오빠 뒤로 쫓랑 튀어 나오면서 참견을 한다.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 어쩔까 하고 망설이던 것이 실타래처럼 풀려나갔다.

「이 집의 여청은 오늘도 늦잠을 잔 모양이구나. ……젠장. 맨날 두 가시가 붙어 누워가지고는……」

아니나 다를까, 조반도 끝내기 전에 허장이와 김두규가 바룻구덕을 늦추막이 걸어메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이고. 두규 아지방 저 입살 보주기,

강정방은 승냥을 뜨러 일어나며 싫지 않은 투로 말 대꾸를 했다.

— 오성찬의 「漁夫들」에서.

오성찬은 濟州人 가운데 庶民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 소설도 開化의 세례를 받지 못한 소박한 제주인을 등장시킨다. 그의 초기소설에 속하는 「돌쟁이」, 「막산이」, 「돌하르방」, 「비바리」, 「生堂神」, 「漢孛山」,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잡초 이야기」 등은 그런 예에 속한다.

현기영의 소설에도 제주의 서민들이 많이 나온다. 「변방에 우짖는 새」, 「바람타는 섬」 등의 소설에 나오는 제주인들 상당수가 서민이다. 그러나 이들은 분노하고 반항하는 서민이다. 말을 바꾸면 소박한 의미에 있어서 民衆이다. 그것과 비교할 때 오성찬 소설의 인물들은 분노하는 정도가 약하거나 島民意識, 集團意識이 약한 소박한 庶民이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내는 것이 오성찬 소설의 특징이다. 제주의 口碑文學에 자주 나오는 인물들과 혈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막산이」, 「잡초 이야기」는 說話를 그대로 다시 한번 傳承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庶民像은 정순희의 「가지치기」, 「닭터럭」, 최현식의 「夾竹桃」 등에도 나온다.

「야, 중호. 오늘이 무사 마지막 금요일 아니가? 우리 고향 촌놈들 만나는 날 말이야. 혹시 잊어버리시카 하고 전화하는 거쥬.」

제주도 차조떡에 묻은 팔고물같이 제주도 사투리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저 촌놈의 말투를 들어 보라. (중략) 녀석의 방약무인한 사투리를 들으면 위태로운 곡예를 보는 것처럼 언제나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그였다. 자신이 섬놈임을 노출시켜 뭐 이로울 게 있나. 처신에 지장을 주면 주었지. (중략)

동창 여남은 명이 좁은 골방에 틀어박혀 곤죽이 되도록 소주를 퍼마시고 서로 뒤엎혀 제주도 사투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는 꼴이라니. 원, 평소에 제주 사투리를 맘대로 못 써서 울화가 맺혔나. 저렇게 악을 바라바라크 쓰게.

이런 반발감을 느끼면서도, 한편 야릇하게도 그 분방한 분위기에 은근히 마음이 쏠리는 중호였다. 참 희한한 녀석들이다. 저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다니. 오죽 서울말이 답답하면 저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사투리로 푸닥거리를 할까? 옆자리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건만 전혀 개의치 않고 방약무인으로 고래고래 사투리를 내지르는 걸 보니 속이 다 후련하다. 중호도 한참 버르고 버르다가 사투리 한마디 중얼거리려 본다는 게 그만 혀가 고드레떡같이 굳는 바람에 낭패를 보았다. 전자회사 다니는 고창석이 보고 "어디 살ampus?" 할 것을 "어디 사니?"하는 서울말과 섞갈려서 그만 "어디 살ampus?"하는 우스꽝스런 말이 되어 나와 주위를 온통 웃겨놨던 거였다. "어디 살ampus?" "어디 살ampus?"하면서 녀석들은 나를 잘도 놀려댔지.

— 현기영의 「海龍 이야기」에서.

서울에 올라가 살고 있는 제주 사람의 意識과 生活의 단면이 이 인용문에 드러난다. 그들은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사투리를 버린다. 이를테면 직장에 근무중에 고향의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걸려 온다. 그들은 당연히 제주 사투리로 말을 한다. 거기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 사투리로 전화를 받으면 직장 동료들이 일시에 눈이 이쪽으로 쏠린다. 그럴 경우 곤혹스런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 지난 날이다.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로 전화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외지에 살고 있는 제주 사람이다. 그래서 사투리의 삶과 표준어의 삶, — 이 이중의 삶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 고향을 떠난 제주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이다. 현기영은 이 소설의 문중호와 같은 인간상을 「順伊 삼촌」, 「어떤 徹夜」 등의 소설에서도 제시하고 있다.

나는 팔목의 시계를 보았다. 정각 도착이면 오분전이다. 나는 가슴이 울렁거리고 있음을 깨닫고, 바다를 향하는 자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울렁거리기의 이유를 생각했다. 비행기가 기다려지는 초초 때문일까. 희의 얼굴을 못 알아보고(어디에 이런 오누이가……) 희 신랑의 실망을 당할 속쓰러움 때문일까, 그것만도 아닐 것이다. 고향의 하늘과 그 정거장의 플랫폼을 생각하는 버릇, 알팍한 감수성이, 이렇듯 설레임 속에 있게 하는 것일 게다. 그 땅, 그 마을의 친척들과 이웃들. 소년은 어느 화창한 이른 여름, 아카시아의 녹음 속에서 멀리 떠꾸기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꽃을 줍다가 복간도로 시집 간 삼촌 누이가 떠난다기에 단숨에 정거장으로 달려가서 누이를 보내며 목이 메어 서 있던, 그 플랫폼을 생각하는 버릇 때문일 것이다.

— 최현식의 「紅叢」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함경도에서 제주까지 흘러온 失鄉民이다. 제주에 정착해서 오래 살고 있으면서도 고향을 잊지 못해 연연하는 인물이다. 육촌 누이가 제주에 신혼 여행을 오는 것을 계기로 故鄉을 생각하면서 望鄉에 젖는다.

이런 情緒는 그의 「먼 산」, 「샬비어」 등에도 나온다. 제주에 건너와 定着해서 살고 있는 '新濟州人'의 세계가 드러나 있다.

이 네 작가 외에도 제주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는 제주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들의 삶을 照明한 작품이 많다. 그런 작품일수록 제주문학적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6. 素 材

濟州人의 文學 가운데 제주의 설화, 歷史, 제주 사회를 소재로 한 문학과 제주의 자연과 역사 유적을 노래한 작품이 상당수 있다.

1) 說 話

제주의 설화를 再現한 작품들이 있다.

현길언 : 龍馬의 꿈, 金寧蛇窟 본풀이, 廣靜堂記, 그믐밤의 祭儀, 세 壯士小傳.

오성찬 : 막산이, 잡초 이야기.

김용길 : 뱀의 神話(1), (2), 제주도 뱀의 說話, 영등할마님 神位, 비바리 說話, 뱀길.

문충성 : 자청비, 설문대할망.

濟州島 說話는 설화 그 자체가 제주 사람의 情緒, 꿈, 욕망 등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것은 在來의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說話를 再解釋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現代 讀者를 위한 작품을 창작한 것이 이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현길언, 김용길의 작품은 설화를 바탕으로 再創造한 점이 두드러진 대신 오성찬, 문충성의 작품은 설화를 그대로 傳承한 듯한 느낌이 있다.²⁾

이런 작품들은 제주문학적 특성이 드러난 것들이다.

2) 좀더 자세한 것은 김영화의 "說話의 現代化"('문학공간', 1994. 1) 참조.

2) 歷 史

제주의 역사를 소재로 한 작품도 상당수 있다.

A. 조선시대

- 현기영 : 소드방 놀이, 변방에 우짚는 새.
- 오성찬 : 돌하르방, 속 清白吏傳, 戀北亭.
- 오경훈 : 流配地.

B. 일제 강점기

- 현기영 : 바람타는 섬.

C. 4·3前後

- 현기영 : 順伊 삼촌, 도령마루의 까마귀, 海龍 이야기, 길, 잃어 버린 시절, 아스팔트, 거룩한 생애, 목마른 신들.
- 현길언 : 歸鄕, 우리들의 祖父님, 지나가는 바람에게, 먼 훗날, 身熱, 未明, 집없는 魂, 女子의 江.
- 오성찬 : 하얀 달빛, 沙浦에서, 단추와 허리띠, 漂海, 닷에 치인 세월, 兎山宅, 이만행소전,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
- 고시홍 : 해야 솟아라, 도마칼, 저승문, 유명들의 친목회, 戒明의 도시.
- 오경훈 : 세월은 가고.
- 김석희 : 땅올림.
- 한립화 : 한라산의 노을.
- 장일홍 : 붉은 섬.
- (김석범) : 火山島, 까마귀의 죽음.

3) 自然 歷史的 遺跡 등

소설보다 詩나 時調에 제주의 자연, 역사 유적, 민속, 꽃, 새 등을 노래한 작품이 상당히 많다.

漢擊山, 제주 바다, 연부정, 정낭, 갈옷, 억새꽃, 동백꽃, 유채꽃, 협죽도, 동백 등등 광범위하다. 그 가운데 漢擊山과 관련된 것들을 열거한다.

● 詩

- 김대현 : 漢擊山(詩集, 보리수)
- 양증해 : 漢擊山(시집, 波濤), 漢擊別曲(시집, 漢擊別曲), 漢擊야(시집, 漢擊

別曲)

- 강동원 : 漢拏山(시집, 霧笛), 漢拏山の 눈꽃1, 2, 3(시집, 上流와 下流)
- 김종원 : 漢拏山(시집, 光化門行)
- 한기팔 : 漢拏山1, 2, 3(시집, 풀잎소리 서러운 날)
- 문충성 : 漢拏山(시집, 濟州 바다), 漢拏山(시집, 바람 부는 아득한 날에), 漢拏山에 흘린 사나이들(시집, 설문대할망), 징징징 漢拏山은 울음 울고(시집, 설문대할망)
- 정인수 : 漢拏山の 봄1, 2, 3, 4, 5, 6, 7, 8, 9, 10(시집, 三多島)
- 김광협 : 漢拏山(시집, 山村抒情)
- 김용해 : 漢拏山(시집, 이어도 하라)
- 김순이 : 漢拏山1, 2, 3, 4, 5, 6, 7, 8, 9(시집, 기다려 주지 않은 시간을 위하여), 漢拏山頂의 꽃을 위하여(시집, 기다려 주지 않은 시간을 위하여)
- 나기철 : 가을 漢拏山(시집, 섬들의 오랜 꿈)

時調

- 정태무 : 漢拏山(시조시집, 耽羅)
- 김공천 : 漢拏山에 올라(시조시집, 漢拏의 바람 노래), 漢拏의 바람 노래(시조시집, 漢拏의 바람 노래)
- 고웅삼 : 漢拏山 가을빛(시조시집, 漢拏山の 바람 소리)
- 문태길 : 한라 여명(시조시집, 마라도 등대)
- 오영호 : 한라산정1, 2, 3, 4(시조시집, 풀잎만한 이유)
- 고성기 : 한라산 매기(시조시집,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
- 고정국 : 한라산1, 2, 3(시조시집, 진눈깨비)
- 이인식 : 한라산 돌며(시조시집, 한라안개 한자락이), 한라산 청개구리(시조시집, 한라안개 한자락이)

漢拏山과 더불어 많이 노래된 소재가 제주 바다, 섬 등이다. 이런 작품들도 제주문학적 특성이 있다.

7. 濟州文學이란 무엇인가

濟州文學이란 「濟州人の 文學」이다. 그렇다면 제주인은 누구인가. 위에서

검토한 대로 文學 創作의 主體로서의 제주인은 濟州의 文化와 風土를 몸에 익힌 사람이다. 적어도 文學이 인간의 意識과 情緒의 표현인 이상 창작 주체인 작가의 의식과 정서에 濟州의 要素가 있는 사람이 濟州人이고, 그런 사람에 의해 창작된 문학이 濟州文學이다.

현대는 사람이 한 곳에 定着해서 살기 어려운 시대다. 따라서 제주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외지에 나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학도 제주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동시에 성년 이후 제주에 건너 와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제주 문화와 풍토가 몸에 밴 사람도 濟州人이고, 그가 내놓는 文學도 제주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들이 발표한 작품 가운데 言語, 情緒, 이야기, 소재 등에 있어서 濟州的, 鄉土的 요소가 강렬하게 드러난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도 있다. 제주인이 창작한 작품은 모두 濟州文學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濟州的, 鄉土的 요소가 있는 작품이 濟州文學의 精粹에 들어간다. 따라서 앞으로 『濟州文學全集』 같은 것을 출판한다면 당연히 제주적, 향토적 요소가 있는 작품이 그 대상이 되고, 그런 작품 가운데 우수하거나 특성이 있는 작품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濟州文學年表」를 제시한다.

濟州文學年表

年度	作品 · 作品集 · 同人誌 등	參考事項
1914	농부가(가사 · 김문준 · 조선총독부 농림학부 교우지)	
1920	4. 비는 노래(시 · 金明植 · 동아일보) 4. 새 봄(시 · 金明植 · 동아일보)	동아일보 창간 측시
1922	4. 露西亞의 산文學(평론 · 金明植 · 신생활)	
1925	1. 哀願(시 · 金志遠 · 조선문단) 3. 濟州島(시 · 申東植 · 조선문단) 11. 거지할미(시 · 金志遠 · 조선문단)	입선작 등단작
1926	3. 유곽 · 마지막 올리는 노래 · 和山の 노래(시 · 金志遠 · 조선문단) 5. Nihil · 虛無의 王國(시 · 金志遠 · 조선문단)	
193?	海女の 노래(歌詞 · 康寬順)	30년대초 해녀투쟁기의 노래
193?	한수품(翰林) 소년단가(가사 · 李益雨)	
1938	4. 戰爭과 文學(평론 · 김명식 · 삼천리문학)	
1940	2. 夜曲(日語詩 · 金二玉, 日本詩壇) 3. 悲しき人(日語詩 · 金二玉, 日本詩壇)	
1942	7. *烟堂任(日語소설 · 李永九 · 청년작가)	제주문학 19집에 번역 게재
1943	流る情緒(日語노트 詩集 · 金二玉) 9. 矜持(日語小説 · 吳本篤彦 · 國民文學)	미간행 제주예술 7집에 번역게재
1944	8. イヨ島(日語小説 · 李蕃珩 · 國民文學)	제주예술 7집에 번역 게재
1946	1. 「新生」 발간	
1948	2. 어린 천사(소설집 · 강금중 · 아세아출판사)	
1952	5. 「新文化」(종합지) 발간	
1953	6. 「黑珊瑚」(동인지) 발간	
1954	11. 靑史(시집 · 金大炫 · 창문사)	
1957	1. 노루(소설 · 崔玄植 · 조선일보) 6. 「제주문화」(문화단체 제주지부) 발간	등단작
1958	4. 옥피리(시집 · 김대현 · 정음사)	

年度	作品·作品集·同人誌 등	參考事項
1958	6. 「樵子林」(동인지) 발간 6. 「文珠蘭」(동인지) 발간	
1959	2. 달의 試業(시·金鍾元·사상계) 7. 와우(시·김대현·사상계) 7. 그늘(시·梁重海·사상계) 10. 「詩作業」(동인지) 발간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1961	6. 에로스와의 아가페의 意味(평론·朴喆熙·현대문화)	등단작
1962	2. 「제주도」(제주도 기관지) 창간 8. 고란초(시집·김대현·교학사)	
1963	1. 波濤(시집·양중해·신조문화사) 5. 「亞熱帶」(동인지) 발간 6. 상흔(소설·姜金鍾·자유문학) 11. 석굴암(시집·김대현·교학사)	등단작
1965	1. 降雪期(시·金光協·동아일보)	등단작
1966	7. 持望(시·金龍吉·문학춘추) 9. 미움의 세월(소설집·강금중·활문사)	등단작
1967	1. 東仁小說의 構造(평론·金永和·중앙일보)	등단작
1968	11. 現代詩의 좌표(評論·金時泰·현대문학)	등단작
1969	1. 별을 따려는 사람들(소설·吳成贊·신아일보)	등단작
1970	4. 강냉이 辭說(시집·김종원·삼애사) 10. 降雪期(시집·김광협·현대문학사) 11. 쳐다보는 돌(시집·김시태·현대문학사)	
1972	11. 먼 旅路(소설집·강금중·월간충정사) 12. 「제주문학」(문협 제주지부) 창간	
1973	1. 별을 따려는 사람들(소설집·오성찬·현대문학사) 4. 紅裳(소설집·최현식·현대문학사) 10. 千波萬波(시집·김광협·현대문학사)	
1974	3. 三多島(시조·鄭仁洙·한국문학)	등단작
1975	1. 아버지(소설·玄基榮·동아일보) 6. 遠景(시·韓笑八·심상)	등단작 등단작
1976	1. 산조(시·金龍海·한국일보) 1. 韓國의인 것의 순화적 이해(평론·宋尙一·중앙일보) 3. 耽羅人(소설집·오성찬·창원사)	등단작 등단작

年度	作品·作品集·同人誌 등	參考事項
1976	9. 이어도 처녀(시조·李肅尚·시조문학)	등단작
1977	3. 浦口(장편소설·오성찬·신아소설)	등단작
	5. 제주바다(시·文忠誠·동아일보)	
	6. 화병(시·文忠誠·문학과지성사)	등단작
	9. 現代韓國小說의 構造(평론집·김영화·태광문화사)	등단작
10. 霧笛(시·姜通源·시조문학사)		
1978	1. 現代詩와 傳統(평론집·김시대·성문각)	등단작
	4. 물빛 아이(시·文海林·월간문학)	
	7. 霧笛(시집·姜通源·시문학사)	등단작
	7. 詩人の 現實과 自由(평론·金昞澤·현대문학)	
	9. 제주바다(시집·文忠誠·문학과지성사)	
12. 西歸浦(시집·한기팔·심상사)		
1979	4. 時代와 삶(평론집·송상일·문장사)	
	5. 漢擎山(소설집·오성찬·정우사)	
	6. 보리수(시집·김대현·시문학사)	
	9. 風化作用(시집·강통원·시문학사)	
	11. 水平線을 바라보며(시집·문충성·문장사)	
11. 順伊삼촌(소설집·현기영·창작과비평사)		
1980	1. 등대(소설·金辰子·한국일보)	등단작
	5. 이어도 하라(시집·김용해·한국문학사)	등단작
	6. 級長選舉(소설·玄吉彦·현대문학)	
	6. 비바리 戀歌(시집·김용길·한국문학사)	등단작
	10. 칸나(시·許榮善·심상)	
11. 자청비(민속서사시·문충성·문장사)		
1981	1. 겨울 굴밭(시조·吳承哲·동아일보)	등단작
	11.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시집·문충성·문학과지성사) 農民(시집·김광협·태멘)	
1982	6. 스승님 가시고(시조·金功千·시조문학)	등단작
	9. 저녁(시·姜邦英·시문학)	등단작
	11. 어머니(시·金秀烈·실천문학)	등단작
	11. 抒情과 認識(평론집·박철희·이우출판사)	
1983	3. 추억(시조·鄭太戊·시조문학)	등단작
	4. 죽음의 시작(소설·高時洪·월간문학)	등단작

年度	作品·作品集·同人誌 등	參考事項
1988	희색의 손(소설집·고원정·고려원)	
1989	4. 한 공산주의자를 위하여(연작소설·오성찬·실천문학사) 4. 民衆日記(시집·김용해·동진문화사) 5. 「西歸補文學」 창간 6. 제주시조(시인협회·제주지부) 6. 손바닥에 쓰는 편지(시집·강종완·제주문화) 7. 빙벽(장편소설·고원정·현암사) 9. 모래 위에 세운 도시(장편소설·오성찬·성지문화사) 11. 바람타는 섬(장편소설·현기영·창작과비평사) 11. 이상의 날개(소설집·김석희·실천문학사) 12. 무지개는 일곱색이어서 아름답다(소설집·현길언·문학과지성사) 12. 신열(시·梁榮吉·문학공간)	등단작
1990	1. 매화(시조·康文新·서울신문) 2. 방울 소리(희곡집·강용준·원방각) 4. 진눈깨비(시조집·고정국·서울) 5. 달맞이꽃(시·金良銖·심상) 6. 구름꽃, 默音과 새(시집·김대현·호서문화사) 7. 한라 안개 한 자락이(시조집·이인식·정동출판사) 8. 等外品(시집·김승립·문학세계사) 9. 나비 채집(시·文武乘·문학과비평) 9. 사월의 끝(시·金哲秀·예술세계) 11. 방아깨비의 꿈(시집·문충성·문학과지성사) 12. 돌의 의미(시조·金榮興·시조문학) 12. 그대 곁에는(시·康鍾完·시대문학) 12. 머리칼이 길다는 것은 너무 화가 나(시·서안나·문학과비평) 12. 허공(시·高薰湜·표현)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1991	1. 나의 靛願(시조·양영길·중앙일보) 1. 손등을 보면서(시조·玄春植·서울신문) 1. 위기의 사내(소설집·현기영·청맥) 3. 계명의 도시(소설집·고시홍·현암사) 3. 한라산의 노을(장편소설·한림화·한길사)	등단작 등단작

年度	作品·作品集·同人誌 등	參考事項
1992	10. 섬은 가장 외로울 때 뚱뚱을 피운다(시집·이용상·동학사)	
	10. 분단상황과 문학(평론집·김영화·국학자료원)	
	11. 칼과 보습(장편소설·오성찬·눈)	
	12. 섬을 떠나야 섬이 보입니다(시집·고성기·푸른숲)	
	12. 가지치기(소설집·정순희·책나라)	
	12. 그 짝글레기의 유품(소설집·오성찬·장백)	
1993	1. 새로운 연대의 노동소설 읽기(평론·양진오·비평의시대)	등단작
	2. 기다림, 강가에 놓으면(시집·김희철·혜화당)	
	2. 권두수 선생의 낙법(장편소설·이석범·민음사)	
	3. 情풀이(시집·김용길·제주문화)	
	3. 대권(장편소설·고원정·우리문학사)	
	3. 생명의 나무(시집·강방영·아름다운·세상)	
	3. 마라도 동대(시조시집·문태길·자유지성사)	
	3. 숨비소리(시조·신승행·현대시조)	등단작
	4. 三多島(시집·정인수·동학사)	
	4. 꽃 한송이 숨겨 놓고(소설집·한림화·한길사)	
	5. 안개 속에서(시·이소영·한국시)	등단작
	5. 흐르는 섬(시집·김철수·우리문학사)	
	5. 나비(시조·홍성운·시조문학)	등단작
	5. 어두운 시대의 초상화(소설집·오성찬·푸른숲)	
	7. 바다(시·유재순·문학세계)	등단작
	8. 배반의 끝(소설집·현길언·문학과지성사)	
	9. 제주의 바람소리(시조집·고웅삼·동인문예)	
	10. 겨울 찻집에서(시집·김상욱·우리문학사)	
	11. 오소리 노래(시·강중훈·한겨레문학)	등단작
	11. 설문대할망(시집·문충성·문학과지성사)	
	11. 미친 사랑의 노래(시집·김순이·탑출판사)	
	11. 애뻘리(시집·강종완·문단)	
	11. 꿈꾸는 섬(시집·문복주·문학아카데미)	
	12. 회색도시(장편소설·현길언·고려원)	
	12. 풀잎만한 이유(시집·오영호·동학사)	

年度	作品 · 作品集 · 同人誌 등	參考事項
1993	12. 流配地 (소설집 · 오경훈 · 신아출판사) 12. 춤추는 뱀장어 (시집 · 고훈식 · 빛남)	
1994	1. 움직이는 얼굴 (시 · 손미희 · 문학세계) 3. 하늘과 땅 (시집 · 강통원 · 백산출판사) 3. 한라산 (시 · 김길홍 · 한맥문학) 3. 우리들의 간이역 (시집 · 김시대 · 문학세계사) 4. 파도가 바람인들 어찌겠느냐 (시 · 채바다 · 한국시) 5. 저녁상을 차리며 (시 · 오추자 · 문예사조) 5. 풀잎소리 서러운 날 (시집 · 한기팔 · 시와시학사) 7. 사랑하는 사람과 나의 거리에는 (시집 · 현주하 · 형상) 7. 네 발로 걷는 아이 (시 · 강순복 · 문예사조) 9. 파도 (시 · 김규중 · 시인과사회) 9. 서귀포부두 (시 · 허은호 · 한겨레문학) 10. 환생을 위하여 (시 · 양권형 · 문예사조) 10. 나비 (시 · 현방훈 · 한맥문학) 12. 먼 산 (소설집 · 최현식 · 정우사) 12. 부재증명 (시조시집 · 김영홍 · 동학사)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 등단작